

# 시원 섭섭

글: 8학년 채시원

안녕하세요? 저의 이름은 채 시원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글 학교를 7년동안 다녔어요. 한글학교는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나누고 싶어요.

저는 일곱 살에 한글학교를 시작했어요. 처음 수업 받으러 갔을 때 한글학교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긴장됐어요. 하지만, 교실 안에는 다 교회 친구들인 거예요!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의자가 지금 네 개 보다 더 필요했고 숙제도 지금 만큼 많지는 않았어요.

코로나 전까지 말하기 대회가 너무 긴장돼서 너무 싫었어요. 하지만, 지금 보니 저한테 정말 좋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학년이 오르면서 안타깝게 한글 학교 친구들이 한 명씩 줄어 들었어요.

코로나가 터지자 집밖으로 못 나가서, 줌으로 한글학교를 했어요. 그때 말하기 대회도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줌으로 했어요.

코로나 록 다운 풀린 후 받아쓰기를 했는데 성적이 엉망이었어요. 그제야 온라인 수업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한글을 많이 까먹은 걸 알게 됐어요. 다행히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칠 학년 때 고등학교 크레딧 주는 한글 언어 평가를 쳤어요. 그리고 크레딧 네 개 다 받았어요.

올해 초엔 졸업이었지만 동생이 한글 학교를 다녀야 하고 한글을 더 잘 기억하려고 칠 학년을 다시 했어요. 한글은 배웠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배웠어요. 다시 칠 학년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받아쓰기 시험을 처음으로 한 번에 패스했어요.

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올해엔 한국 역사를 했어요. 6개월 동안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배웠어요. 역사 책도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지만 영어번역이 적혀 있어서 생각보단 쉬웠어요. 이 역사수업은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수업이었습니다.

칠 년 동안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, 세계 언어 평가 패스하는 것을 도와줬고, 한국 역사도 배웠어요. 한글 선생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간식도 잘 주시고 정말 최고이셨어요. 하지만 한글 학교를 드디어 끝내서 너무 시원해요. 하지만 이제 매주 화요일에 할 게 없어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섭섭한 것보다 시원한 게 많아요. 한글 학교는 졸업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고등학교때 매주 몇 번 한글 연습하면 한글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.

이제 한국 갈 때마다 한글을 쓰고 읽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친척들하고 문제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신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선 한글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좋아요. 감사합니다.

2025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